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똑똑(talktalk)한 소식지!



02-03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노력하는 안산시. 대응 상황·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봤다.

07 인터뷰

안산시청 씨름부, 이아란 선수

2020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매화급(60kg 이하) 우승자, 이아란 선수가 전하는 여자 씨름의 매력과 미래의 포부.

11 3.1절

101년 전, 그 날의 안산

안산시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을 알아보고 안산초등학교에서 안산읍성 객사로 이어지는 비석거리 만세운동길을 걸어보자.

12-13 기획

2020 안산 방문의 해 특집

경기서남부권의 대표 관광도시, 안산시의 관광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숨겨진 매력을 가진 풍도와 육도, 95년 전통의 동춘서커스를 소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차차 이용 권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는 이렇게 노력합니다!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산시는 1월 29일을 기점으로 총 9개의 실무반(안산소방서, 안산경찰서 포함)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반 주요 임무 -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자원지원,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재난수습홍보, 구조구급, 사회질서유지

주민참여 행사 잠정연기

시 주관 행사,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행사를 잠정 연기합니다. 부득이하게 개최되는 행사에는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아울러 시민시장 5일장, 일부 어린이 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박물관 등을 임시중단, 폐쇄하고 계속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전파 등 대민 홍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참여자에게 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스크 및 예방수칙 가이드 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를 통해 안산시 관내 확진자 현황·실시간 가짜뉴스 대응 및 코로나19 관련 중요 안내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단원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운영

상록수·단원보건소는 평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통역 인력을 선별진료소마다 배치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조사대상 중 유증상자 역학조사, 임상증상 확인,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사가 가능한 경우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 대구, 청도(대남병원)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자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②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④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자

* 호흡기 증상 :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 선별진료소 :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 출입 전 따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지원책과 예방책 마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상담(☎031-481-2695)을 제공하고 안산화폐 '다온'의 10% 할인 특별혜택기간을 3월까지 확대합니다.(4월 혜택기간 연장 검토 중)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조하여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로 500억 원을 융자 접수받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624)로 피해상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 및 방역물품 지원

원곡동 다문화특구, 한양대 학사길, 공단지역(염색, 도금단지 등), 시민시장,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까지 집중적으로 분무·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원여객, 태화상운, 한일고속, 선진고속,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 차고지를 살균 소독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승객용 세정제를 비치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38만여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고 추가로 10만개 이상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안산 소재 신천지 교회 관련 대응

안산시 관내 신천지 집회 및 모임장소 긴급점검(2.21.) 결과, 현재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한 안산시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모든 집회 및 활동이 중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염 증상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단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웃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시화호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하는 안산시

매년 40억 원대 세외수입 확보하게 돼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해 시민을 위해 쓰게 된다.

공유수면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가 선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전은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철탑 47기와 송전선로를 2004년 설치했다. 최근 안산시가 이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안산시는 앞으로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한다고 한다.

'345kW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km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 원(2013.3~2018.5)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 받았다. 그러나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나온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안산시는 중요소송이었던 해당 사안에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에 임했고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이끌어 냈다. 당시 재판부는 "최초 설치 당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으며, 송전선로 부과면적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다.

시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산정 면적에 따라 이미 받은 219억 원 중 일부만 한전에 반환해 정산을 마무리한 뒤 매년 40억 원대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의 적극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겪은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7)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실시

2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

안산시는 2020년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접수를 2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3월6일까지는 여성비전센터 4층 대강당에 마련된 접수처에, 이후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등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이며,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100분 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연 최대 2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

안산시-한양대, 시민숙원 해결에 한뜻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지에 종합병원건립 MOU 체결



종합병원건립을 위해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산시는 2월5일 안산시청에서 시 관계자,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양대학교와 종합병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안산시와 한양대는 상록구 사동 1271 번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종합병원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된다.

앞서 시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초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10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대체 부지를 검토해 왔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한양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바이오생명공학, 의료기업 유치 등 종합병원 복합개발의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됐다.

올해 수인선이 개통되는 데다 향후 신안산선, KTX와 연계한 철도교통망도 확충되는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종합병원이자 의료산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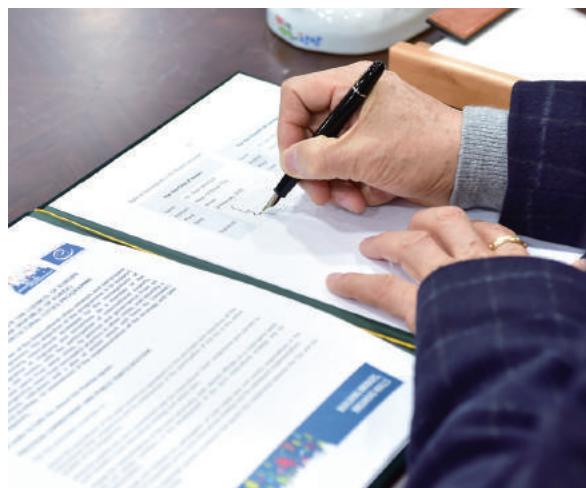
시 관계자는 "향후 바이오·제약·의료기업 유치와 함께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돼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대학 내 유류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양대 ERICA캠퍼스에는 연면적 98만4826m² 규모의 건물에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첨단기술기업의 입주시설과 창업지원 시설, 연구소,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문의 : 안산시 신성장전략과(031-481-2478)

다양한 문화·국적의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호존중하며 교류하는 도시

전국 최초·아시아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지정



안산시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에 지정됐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선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하는 도시로,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EU)이 문화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확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2월18일 유럽을 방문해 상호문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을 연기하고 서면협약으로 대신했다.

앞서 전 세계 44개국 136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아시아 국가 도시는 일본 하마마쓰시 1개에 불과했다. 안산시가 지정되면 137번째 상호문화도시이자 아시아 2번째 도시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유럽평의회가 제시하는 90개 지표 103개 문항 대다수를 충족함은 물론, 아시아 상호문화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유럽평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다.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시는 유럽평의회 및 선진 회

원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상호문화도시 육성 실행계획 수립과 시민 이해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 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개국 8만7천 507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외국인인권,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의 우수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세계적인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에서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만큼 문화 다양성을 안산시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733)

용신학교에서 마음 속 간직한 배움의 꿈을 이루세요!

안산교육지원청 지정 배움터로 초등 및 중등 학력 인정받을 수 있어



“내 나이 60이 넘어 배움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혼자 버스를 탈 수 있고 거리의 간판을 읽을 수 있어요. 영어 간판도 보여요. 늘 무기력하고 즐거움이 없었는데 공부를 시작한 후 건강하고 행복해졌어요.” 학습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안산용신학교에서는 학창시절,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한글을 배우지 못한 늦깎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한 배움에 대한 꿈이 안산용신학교에 오면 현실이 된다. 한글을 깨우치고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 학습자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수업 후 학력인정 졸업장도 받을 수 있다. 고등부 평생학습계좌제 수업도 열린다.

배우는 학습자들의 연령대도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다. 한마음 한뜻으로 언니동생하며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꽃피는 춘삼월, 봄소풍은 학생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수학여행, 선후배와 함께하는 졸업여행 등 즐거움이 가득하다.

또한, 기초 수학, 중학 수학, 한자, 사물놀이, 민요, 라인

댄스, 산악회, 요가, 서예, 역사문화탐방, 스마트폰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향하는 학습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다.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러 가는 게 행복이라는 학습자들의 목소리가 활기차다. 행복이 자라는 안산용신학교에서 배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안산용신학교는 지난 2월14일에 제32회 졸업식을 가졌다. 초등 20명, 중등 29명이 졸업장을 받았고 초등 과정을 36명, 중등 과정을 30명이 이수했다. 2019년 한국어교육 이수자는 681명이다.

안산용신학교는 32년의 역사를 지닌 희망의 배움터로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안산교육지원청의 지정을 받은 초등 및 중등 학력인정 학교다.

전철 4호선 안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단원구 다문화길 16)해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배움이 가능하다. 안산용신학교는 3월, 4월에 입학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나 직접 내방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교육과정

- 초등/중등 : 1~3년 안에 졸업 및 졸업장 취득
- 고등 : 평생학습계좌제반
(사회, 과학, 한국사 검정고시 시험 면제)
- 영어 : 왕초보 ABC 알파벳, 생활영어, 문법, 필기체
- 한글 : 어르신 한글 기초(ㄱ ㄴ ㄷ / 간판읽기)
맞춤법(받아쓰기)
- 동아리 : 수학, 한자, 사물놀이, 민요, 라인댄스,
산악회, 요가, 서예, 역사문화탐방, 스마트폰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올해부터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손해 없어

안산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직접신고제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소득세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전환됐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흠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할 수 있다.

시는 달라진 제도의 정착과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5월에는 세무서뿐 아니라 구청 신고센터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공정조세과(031-481-2195)

안산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서 있는 형태의 소녀상, 안산시청 앞에 건립

안산시에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안산시청 내 분수대 앞에 건립되는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제작돼 3월1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안산에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것은 지난 2016년 8월15일 광복절 때였다. 불평등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전국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전철4호선 상록수역 앞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정부는 지난해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무시하고 '한국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평화의 소녀상 추가 건립에 대한 여론이 확대됐고 단원구에 세워 더 많은 시민이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지난해 말 안산평화의소녀상 시민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안산의 여러 단체 및 191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안산평화의소녀상 시민건

립추진위원회는 시민모금 활동은 물론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홍보 외에도 역사인권 관련 해설사 양성과정 및 시민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와 소녀상 형태는 오프라인 캠페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으며, 안산평화의소녀상 시민건립추진위원회가 실현 가능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비교 검토했다. 이를 통해 안산 시청 앞에 '서 있는 소녀상' 형태로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높이 1.6m 크기의 청동 조형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소녀상은 두 손에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랑새를 들고 있다.

이 소녀상은 2014년 거제에 처음으로 건립된 김운성, 김서경 작가의 작품으로 현재 이화여대 앞과 서울 정동 프란체스카 성당 앞, 경남 남해군에서도 볼 수 있다. 서 있는 형상은 일본의 역사은폐와 왜곡을 더는 않아서 지켜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검은색 그림자는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 난 마음과 상황을, 흰나비는 환생을 표현하고 있다.

안산평화의소녀상 추진위 관계자는 "안산에 세워지는



상록수역에 있는 안산 평화의 소녀상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은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향한 분노의 외침이자 마주 보며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다짐"이라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의 : 안산평화의소녀상 시민건립추진위원회(031-439-301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소식通 NEWS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안산시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로 단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기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iansan.net>)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을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집중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794)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799)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행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없는 환경 조성



안산시에서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가 2월10일부터 시행됐다.

서비스는 관내 상가, 병원 등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나 다중이용시설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2일 동안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학교 등 화장실 규모에 따라 대여기간 조정도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접수순서에 따라 기기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자로부터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수령하면 된다. 이용 후 직접 방문해 제품에 고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납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기기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변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행정안전부도 범정부차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지원과 탐지장비 대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에서도 이전부터 공중화장실 범죄를 방지하고자 노력해온바 있다. 지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452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상시점검을 추진했다. 그리고 올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안산시뿐 아니라 수원시, 파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등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과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때 매우 큰 사회적 이슈였고, 현재 다른 이슈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정기적인 탐지장비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여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INTERVIEW

상대를 넘기는 짜릿함, 매력 넘치는 여자씨름을 더 알고 싶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TV를 통해 덩치 큰 두 명의 남자 선수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민속씨름대회를 누구나 한 번쯤은 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천하장사 출신의 몇몇 스타들도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씨름이라는 운동 종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부 씨름대회나 경기는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다. 2017년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여자부 씨름대회 최초의 공중파 중계였다고 하니 남자부 경기에 비해서는 아직 대중들과의 접촉은 적은 편이다.

2018년 창단한 안산시청 소속 씨름부에서 새해 시작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올 1월 28일 열린 '2020 설날장사 씨름대회' 여자부 매화장사(60kg 이하) 결정전에서 이야란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것이다. 2019년 추석장사와 올해 설날장사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안산시청 소속으로 안산을 빛낸 이야란 선수를 만났다.

Q. 먼저 소개 부탁드린다.

대학생활 중, 남자 씨름부 감독님의 권유로 씨름이라는 운동에 도전하게 됐다. 처음에는 작은 대회들에 몇 번 나가보다가 우연히 도전한 전국 생활체육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실업팀인 나주 호빌스에 스카우트 됐고, 이듬해 화성시청 소속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성시청 시절 훈련 도중 부상으로 어깨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1년여의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팀을 떠나게 되었다. 정식 팀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양주 씨름 협회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Q. 안산시청 씨름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

공백기 이후 지난해 경기에 복귀했지만 운동량이 부족해서 3월 열린 대회에서 예선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 당시 마침 눈앞에 안산시청 씨름부 감독님과 코치님이 계셨고 안산에서 운동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다행히 팀에서 받아주셔서 4월부터 연습생으로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감독님, 코치님을 비롯해 선수단 언니들이 숙소도 함께 쓰게 해주시고, 밥도 챙겨주고 운동도 함께 하게 해주시는 등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 그 과정에서 연습생 신분이자 남양주 씨름협회 소속으로 2019년 9월 열린 추석장사대회에서 생애 첫 매화장사의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올해 1월 안산시청 팀과 정식으로 계약했다.

운동하면서 안산시청에 여자 씨름부가 생겼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감독님과도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인연이 됐다. 작년 첫 경기부터 탈락으로 절박하게 승부욕이 생겨 감독님께 먼저 다가가서 운동하고 싶다고 용기를 냈는데 흔쾌히 받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Q. 독자들을 위해 씨름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남자씨름이 더 친숙할 텐데 남자씨름은 산 이름으로 체급이 나뉜다. 체중이 낮은 순부터 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이 있고, 통합대회로 천하장사 타이틀이 있다. 여자씨름은 꽃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다. 매화급(60kg이하), 국화급(60kg이하), 무궁화급(80kg이하)으로 나뉘어져 있고 역시 1년에 한 번씩 천하장사 타이틀이 있다.

2018년 창단한 안산시청 여자 씨름부에는 현재 조경덕 감독님을 비롯해 매화급 3명, 국화급 2명, 무궁화급 1명 총 6명의 선수로 이뤄져 있다.

씨름의 매력은 남자부, 여자부 마찬가지로 기술도 다양하고 멋있고 경기를 보면 흥미진진하다는 점이지만 여자씨름은 뭔가 작고 아기자기해서 재미가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중계도 남자씨름 중심이라 아쉽다.

하지만 힘과 기술로 상대를 넘기는 짜릿함. 상대를 이겨 상대가 내 앞에 넘어졌을 때, 내가 그 상대 위에 있을 때, 승리의 순간 등 재미와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Q. '2020 설날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매화장사 우승을 축하드리며 소감이 궁금하다.

자신감도 부족 했고 걱정이 많아 대회를 준비하며 많이 힘들었다. 올해 첫 시합의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대회로 치면 매화급이 종목 중에 먼저 시작하다보니 내가 먼저 잘 해야 팀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걱정, 내가 잘 해야 대회의 분위기를 우리 팀으로 끌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안산시청 팀에 합류하고 열심히 노력한 동계 훈련의 결과로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내가 우승했다는 뉴스, 신문기사들을 보다보면 조금씩 실감이 난다.

Q. 짧은 시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지난해 추석장사 대회는 연습생 신분, 남양주 씨름협



2020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매화급 장사
이야란 선수(안산시청)

회 소속으로 참가했고 장사에 오르는 성적을 얻기는 했지만 그때는 많이 외로웠다. 정식 팀이 아니다보니 경기 당시 감독석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장사 타이틀이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설 대회는 안산시청 소속 선수로 출전했고, 감독님과 코치님이 뒤에 있다는 생각에 경기하는 내내 너무 든든했다. 경기 중에는 감독님, 코치님 목소리 밖에 안 들렸다. 팀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줬고 열심히 했다.

4년 여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감독님, 코치님께서 잘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해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믿고 따랐다.

Q. 선수로서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1년 중 규모가 큰 대회로 5개(설, 단오, 추석, 천하장사, 천하장사 대축제)가 있는데 그 중 올해 매화장사 우승 트로피를 3개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설 대회와 추석 대회는 욕심이 난다. 다행히 첫 대회에서 장사 타이틀을 얻어 앞으로 두 개 남았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록을 만들고 싶고 단체전도 우승하는 것 이 목표다.

장기적인 목표는 일단 열심히 해서 여자씨름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의 성장과정을 보고 다른 후배 선수들이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선수로서 가장 가슴에 남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Q. '안산톡톡' 독자, 안산시민에게 한 마디.

평소 열리는 대회는 혹시 못 보시더라도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씨름을 TV중계를 통해 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셨으면 한다. 특히 남자씨름만 보지 마시고 여자씨름도 많이 봐주셨으면 한다. 씨름이라는 운동이 재미도 있고, 흥미진진한 경기도 많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한다.

'너! 나! 우리! 함께 만들어요'…2020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일반·기획 공모사업, 공동체 지원사업 등 6개 부문으로 진행

오밀조밀 정감 어린 그 옛날 골목길은 사라졌지만 건조한 도시문화 속에서도 주민이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문화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안산 25개동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소통하며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산시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20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마을만들기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주민공모사업은 일반 공모사업과 기획 공모사업, 경기도가 지원하는 공동체 지원사업 3가지 영역,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 공모사업은 마중물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기획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사업으로 펼쳐진다. 경기도 지원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연대 사업, 마을공동체 기반마련사업과 거점공간 조성사업 별로 모집한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계기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사업은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사이동 '팝업 맘껏놀고 싶은 아이', 초지동 '척수장애인동호회', 일동 '마피아여' 등 주제가 보이는 사업부터 이름만 들어

서는 주제가 뭘까 궁금해지는 사업까지 동별로 약 50여개의 공모사업이 신청됐다.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주체가 되어 마을문제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7개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각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사업은 안산시 주민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사업은 그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지속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월피동 겨자씨커뮤니티가 지원했다. 동 단위 마을계획수립 및 의제 실행을 위한 사업이며, 마을조사형은 각 300만원 이내, 마을계획형은 각 1천만 원 이내, 마을의제 실행형은 각 1천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마을공동체 기반마련사업은 마중물 사업 등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 공동체로써의 성장과 기반마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500만원, 거점공간조성사업은 안산시 주민공모사업에서 1년 이상 활동한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단체가 공모신청에 참여했으며 역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단체에게는 각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시마을만들기센터는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모범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웃과 함께 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올해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행복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걷는 만큼, 자전거 타는 만큼 마일리지 적립

광역알뜰카드로 대중교통비 할인 받으세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으로 안산시민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교통카드와 마일리지를 결합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청구할인 10%와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 자전거 이용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최대 20%할인을 더해 교통비의 30%까지 요금

을 할인받는 제도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교통비 결제예정 금액에서 쌓은 마일리지만큼 할인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의 경우 쌓은 마일리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는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고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광역알뜰교통 카드 앱을 설치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입력한 자택 주소, 회사나 학교 등 목적지, 대중교통 이용 정류장 등의 자료를 토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앱을 설치한 후 대중교통 이용 시 집에서 출발할 때 '출발'버튼을 누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 도착 시 '도착'버튼을 눌러야 한

다. 800m 기준 1회 250원에서 450원까지 적립되며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통·환경·건강 등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돼 환경도 보호하고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참여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요금 이용·결제가 가능해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61)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나 알뜰' 시의 출근길

800m 기준
250~450원 절약
안산시

집 출발 버튼 클릭
보행·자전거 600m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200m
도착 버튼 클릭 회사

경쟁력과 장애인 고용, 큰숲 베이커리의 아름다운 가치

상록구 부곡동에 큰숲 베이커리 3호점 개점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푸른동산보호작업장의 사업인 ‘큰숲 베이커리&카페’가 1,2호점에 이어 2월17일 3호점을 열었다.

‘큰숲 베이커리&카페’는 전문 제빵사와 장애인 직업 훈련생들이 함께 제과·제빵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동산고등학교 내 수영장 매점에 위탁 판매를 시작한 후 1호점(사동점), 2호점(중앙점)이 차례로 운영돼 오다 부곡동에 3호점이 들어선 것이다.

동산복지재단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활은 직업 재활이라는 목표 아래 개인의 특성과 능력, 흥미 등이 고려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과 적응능력을 키워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푸른동산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큰숲 베이커리&카페’ 사업은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심어져 작은 숲이 큰 숲을 이룬다는 것으로, 제빵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시설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직접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사회



에서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큰숲 베이커리&카페’ 3호점은 1·2호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초기 문을 연 1·2호점은 좁은 공간의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새로 문을 연 3호점은 규모가 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좁은 공간에서는 대량으로 빵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3호점에서는 단체 주문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김호열 푸른동산보호작업장 원장은 “공간이 넓어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바리스타로 양성한 장애인들을 카페에 고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만드는 빵집을 한 번쯤 도와주자는 생각을 넘어 좋은 품질의 빵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빵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큰숲 베이커리&카페’는 천연재료와 유기농 재료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원료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빵사들의 실력과 정성도 요구된다.

‘큰숲 베이커리&카페’ 사업 관계자들은 ‘좋은 품질의 빵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부단한 노력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익을 창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문의 : 푸른동산보호작업장(031-406-8702)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미술관에서 운동하며 만나는 이국적인 경험

경기도미술관 ‘두리안 GX룸’ 전시 열려

대만 출신의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 유쳉타(Yu Cheng-Ta)의 관객 참여형 전시 ‘두리안 GX룸’이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5월1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운동’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두리안’이라는 이국적 분위기의 팝업 공간에서 펼치는 신선한 프로그램이다. ‘실내 운동실’로 연출된 전시공간에서 관람객들은 트램펄린, 훌라후프, 지압판, 고무공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해 직접 신체를 움직이며 전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캐릭터, 다양한 일상의 소품과 문구로 가득 찬 전시실은 운동을 유도하는 신나는 음악까지 더해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더불어 포토존을 연상시키는 전시실 분위기와 미디어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SNS 인증을 유도하기도 한다.

작가 유쳉타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서 문화와 언어, 인종, 성 정체성에 관한 일체의 경험들을 서술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가 ‘인생극장(life theatre)’으로 설명하는 허구의 장치와 특유의 유머 속에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자리한다.

특히 이 전시에서 작가는 아시아 두리안 농장 집안에서 태어난 ‘파미미(FAMEME)’라는 가공의 인물로 변신했다. 파미미는 SNS 입소문에 힘입어 아시아 전역에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알린 성공한 사업가이자 수많은 SNS 팔로워



를 보유한 유명인이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두리안 프로모션을 개시해 뉴욕과 타이베이를 거쳐 올해 경기도에도 착했고, ‘두리안 GX룸’을 통해 두리안의 효능을 국내에서도 전파하려고 한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SNS가 현대인의 소통방식과 주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다.

‘냄새 나는 과일’, ‘금지된 열매’, ‘과일의 왕’ 등 다양한 꼬리표를 달고 있는 두리안을 통해 문화의 탈경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국적인 가치와 이질적인 가치의 경계, 우리 안의 타자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를 준다.

유쳉타 작가는 2019년 퍼포마비엔날레, 2015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2014년 상하이비엔날레 등 유수의 국제전시에 참여하며 현대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 1월 국내 미술잡지에서 발표한 ‘동시대 미술가 45인’에 선정된 바 있다.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은 “감각의 영역을 확장한 이번 전시를 통해 유쾌하고 신선한 미술관의 경험을 담아가길 바란다”며 “SNS로 전 세계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오늘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질적인 가치의 충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24일부터 임시 휴관 중이며,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gmoma.ggcf.kr>)에서 추후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본격 가동

청년큐브 초지캠프 내 위치, 창업기업 사장 진출 지원



안산시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252m² 규모로 조성한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창업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신제품 생산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지원시설이다.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는 잠재력 있는 성장 단계의 창업기업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제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예를 들어 창업 단계에 아이디어와 기초적인 기술력으로 사업안과 제품 설계도면은 준비됐지만 당장 제작기술이나 장비가 없어 동작시제품을 만들 수 없는 창업기업의 경우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된다.

시설은 지난해 8월 조성됐으며, 관내 창업기업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메이킹 장비 시연회, 교육 등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다.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 초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진입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한다. 창업단계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실증 등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 생산체계 구축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론 관내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펼친다.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신청만하면 보유된 디지털 제조 장비를 활용해 동작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장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촬영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촬영 등을 통해 마케팅 및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스튜디오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주부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과 시설 이용에 참여하고 있다”며 “올

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가 운영되니 창업을 꿈꾸는 더 많은 시민과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올해 시설 운영비로 5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가 운영을 맡는다고 한다. 아울러 한양캠프(창업실 10실·면적 314m²)와 예대캠프(20실·816m²), 초지캠프(20실·2천13m²) 등 3개 캠프로 운영 중인 청년큐브는 올해도 청년들의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큐브는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입주자, 입주기업으로 선발되면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사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국·내외 전시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큐브 및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는 청년큐브 홈페이지(<https://www.youthcub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청년큐브 초지캠프 디지털제조스튜디오(031-8040-6855)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단원구청, 지상 34면 · 지하 15면 등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

안산시 단원구는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전용주차장 49면을 마련해 운영한다. 기존 복합청사 내 주차장 226면과 제2주차장 개선공사를 통해 마련한 216면 등 총 442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해 왔음에도 많은 민원인이 접근성이 좋은 청사 1층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면 주차구획을 선호해 주차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복합청사 1층 지상주차장 34면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면 주차장 15면에 에폭시 도장공사 및 민원인전용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인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한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번 구청을 방문하면 지하주차장은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 바로 주차하지 못하고 밖으로 다시 나가 주차해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민원인전용 주차장이 조성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기용 단원구청장은 “단원구 복합청사 내 민원인전용주차장 조성은 민원업무로 방문하시는 시민들께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단원구 복합청사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단원구 행정지원과(031-481-6138)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낸 ‘실버 연극’ 실버극단 ‘봄날’ 임종길 대표 “시립 실버극단 희망사항”

안산의 실버극단 ‘봄날’은 날마다 봄날이길 바라며 2014년 3월 창단해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극단이다. 주로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주제 등으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연극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실버극단 봄날을 이끌며 다양한 연극 무대를 빛내고 있는 임종길 대표를 만나 극단 봄날의 이모저모를 들었다.

임 대표는 “원래 연극을 좋아했었지만 가정을 이루다보니 좋아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2007년 정년퇴직 이후 복지관에 나가보니 연극하는 분들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시작계기를 밝혔다.

이어 “복지관에 다니면서 쭉 연극에 참여하다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인 컬처75의 김태현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안산시민극단에 들어갔고, 이후 풍물마당 ‘터주’를 만나 연극뿐 아니라 풍물도 함께 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며 2014년 3월 실버극단 봄날을 창단했다”고 창단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창단 이후 극단 봄날은 2014년 10월, 제1회 공연인 ‘춘향전’을 시작으로 ‘청이날다’, ‘묘한토끼전’, ‘갯벌엄마와 담담이’ 등 공연을 매년 무대에 올렸다.

극단 봄날의 구성원이 어떻게 꾸려지는지에 대한 물음에 임 대표는 “단원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이유는 극단 자체 예산이 없어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극단을 운영하고,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라 극단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예산이 있는 시기가 분절적이다 보니 연극 연습과 공연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때론 몇 달씩 공백이 생긴다.

그래도 임 대표는 극단의 배우, 구성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평소 복지관 행사 등 여러 무대를 찾아 제안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임 대표는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동화구연 연극 기초반 강좌도 맡고 있어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

임 대표는 극단 봄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단원 모집을 위해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노력 중이다. 계속해서 모집 중이니 시니어 극단 봄날에 관심 더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임 대표는 “안산에 시립 실버극단을 만들어 오랫동안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사항이다”며 “꼭 만들고 싶고, 실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가입문의 : 실버극단 봄날(070-7722-7779)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101년 전 그날, 안산만세꾼이 되어 비석거리 만세운동길을 걷다

올해는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 되는 해다. 전국적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로 바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 등의 영향으로 한결 조용한 분위기다. 평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도 안산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의외로 많지 않다.

1919년 서울에서 봉기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3월 30일 오전10시, 안산에서는 수암면 비석거리에 모인 민중 2천여 명의 항거를 시작으로 반월면, 대부면, 군자면 등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 비석거리 만세운동은 당시 수암면에 거주하던 18개 마을의 8천여 명 중 노인과 아동들을 제외한 2천여 명이 동참한 안산 최대의 만세운동이다. 안산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은 지금의 수암농협 근처로 당시 비석거리라 부르던 곳이다. 조선시대 안산군에 부임했던 지방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가 모여 붙은 지명인 '비석거리'에 모인 주민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면사무소, 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을 돌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수암리 비석거리 만세운동의 특징은 2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지만 폭력적으로 번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이다.

이날 시위는 유익수, 홍순칠, 김병권, 윤병소, 이봉문, 윤동욱 등 6명이 주도했다. 월피리(월피동)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던 유익수(1870~1926)는 일본경찰이 무력진압에 나서자 흥분해 과격해진 군중들에게 비폭력을 호소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로 이끌었다. 와리(와동)의 대지주였던 홍순칠(1877~1932)은 1919년 3월 29일 와리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해 태극기를 제작하고 주민을 규합해 비석거리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후 일본경찰에 체포된 주동자들은 모두 재판에서 떳떳하게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다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고문후유증으로 병고에 시달려야했다.

3월에는 따스해진 봄바람을 맞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동네한바퀴 산책하듯 수암동 만세운동길을 걸어보자.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고장 안산' 지역화 교재에 수록된 독립역사 유적지를 따라 이른 봄 가족 나들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101년 전 그날처럼 비석거리에서 시작해 향교터로 끝나는 코스를 완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통학교(안산초교)~주재소터(구 안산교회)~면사무소터(수암마을전시관, 안산객사)로 이어지는 만세길 핵심코스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길이다. 개교120주년을 맞은 안산초교 언덕길을 걸어올라 수암마을전시관에 다다르면 전시관에서 잠시 쉬어가며 문화유산해설사에게 수암동과 안산의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햇볕이 따스한 날엔 수암마을전시관 뒤편 안산읍성 객사마루에 편안히 앉아 수암면사무소가 있던 당시의 수암동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걸어본 비석거리 만세운동길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내 고장 안산에 대한 자긍심과 안산만세꾼의 힘찬 함성을 묵직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안산의 역사를 품은 수암마을전시관

옛 안산의 행정중심지이자 비석거리 만세운동 장소인 수암동에 세워진 수암동마을전시관은 수암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마을 전시관이다.

옛 경로당 건물구조 그대로의 작은 공간으로 이뤄졌지만 2층 전시실 큰 창문을 통해 현재 수암동의 모습과 복원된 안산객사의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3월까지 '1919.3.30. 수암' 기획전이 전시중이며 안산의 독립 운동사를 알아본 후 아이들과 태극기 스템프 체험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전시관에 상주하는 문화유산해설사에게 수암동과 안산의 역사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 3길 34(수암동 481-9)
운영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문의: 031-481-2794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해제 시 까지 휴관

천년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 안산읍성 및 관아지

경기도기념물 제 127호인 안산읍성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왜구를 막기 위해 수암봉의 능선을 이용해 평지를 감싸며 쌓은 772m의 직사각형 평산성이다. 성내에는 조선시대 무장 김정경(1345~1419)이 심었다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정조가 사도세자 능 참배길에 머물러 안산행궁이 된 객사 건물이 복원돼 있다. 조선시대 관아지와 일제강점기 때 면사무소로 이용되던 건물터가 남아 주춧돌과 기와 조각 같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출입문인 평근루와 객사, 동헌, 내아, 옥사 등이 있었으나 모두 소실됐다. 2021년까지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은 성곽 둘레길을 걷는 것은 불가하고 객사와 성내 관람이 가능하다.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 26-4
문의: 031-481-3437





2020 안산 방문의 해 특집! 안산으로 놀러오세요~

야생화 천국, 비밀의 정원 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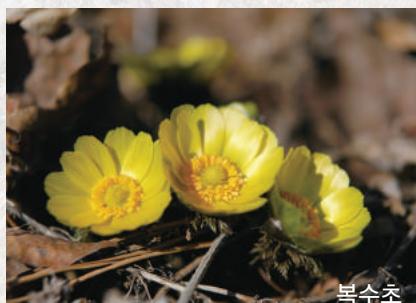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시간30분 정도 가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풍도라는 섬이 있다. 안산9경 중 한 곳인 이곳은 배가 하루에 한번 밖에 운항하지 않아 1박을 해야 하지만 조용하고 한적해서 섬을 두루 돌아보며 여유로운 여행의 진미를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풍도 선착장에 내리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엔 50여 가구에 100명 남짓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지소와 보건소, 마을회관과 예쁘고 작은 풍도 분교가 있다.

마을을 지나 후망산에 오르다 보면 마을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수령 500~600년으로 추정돼 안산시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마을 해안을 바라보며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고, 바로 밑에는 예로부터 물맛이 좋고 효험이 있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는 샘물이 흐르고 있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등지고 후망산 입구에 다다르면 '쉿!'하게 만드는 비밀의 정원이 있다. 감탄사밖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곳, 봄볕을 받고 기지개를 펴는 야생화들의 향연이 눈 앞에 펼쳐진다. 후망산 전체가 복수초·노루귀·풍도 바람꽃·중의무릇·꿩의바람꽃·풍도 붉은대극으로 뒤덮여 봄에는 '야생화 천국', '비밀의 정원'으로 부르는 '서해의 꽃섬'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올 봄에는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19로 야생화 군락지인 비밀의 정원은 휴식년에 들어가지만 후망산 곳곳에 피어 있는 야생화는 맘껏 볼 수 있다.

풍도 바람꽃과 대극은 지구상에서 오직 풍도에서만 군락지를 이루고 자생하는 꽃이라 풍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꽃이다. 이 때문에 매년 3~4월이면 섬 곳곳의



작고 예쁜 보물섬 같은 육도

지난해 '올해의 관광도시'에 이어 '안산방문의 해'를 맞은 안산시가 다양한 관광지로 통한다.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바닷길 ▲풍도 ▲동

풍도와 육도는 방문이 쉽지 않아 숨겨진 매력을 가진 관광지로 통한다. 대부분

서해의 수많은 섬 가운데 한 곳이자, 안산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풍도와 육도

야생화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가 찾고 있다. 해양성기후와 토양, 환경이 잘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야생화와 산나물, 약초를 풍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풍도의 야생화가 유명세를 타며 많은 사람의 발길로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야생화 사진을 찍을 때도 잘 보호해주고, 걸을 때도 꽃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서 걸어야 아름다운 야생화를 오래도록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망산 끝으로 내려가면 '붉은색 큰 바위'가 있다하여 이를 붙여진 '북배'에서는 서해바다를 감상 할 수 있다. 북배를 뒤로하고 채석장을 따라 청옆골 해변을 거쳐 등대도 보고 해안산책길을 걸으면 봄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풍도는 봄나물이 가득한 곳이다. 이를 봄 풍도에서만 나는 나물과 두릅, 달래, 냉이 등 모두 야생에서 채취해 향이 진하고 맛이 좋아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싱싱한 해산물과 바로 잡아 담가 놓은 게장도 일품이다. 숙박할 곳에 미리 예약하면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식사를 마련해준다.



◆ 배 편 : 대부해운(032-886-7813~4)

◆ 짹수일 : 대부도방아머리항 오전10시30분 출발(1시간 반 소요)

◆ 홀수일 : 대부도방아머리항 오전10시30분 출발(2시간 소요-육도 경유)

◆ 풍도어촌체험관 및 숙박 문의 : 010-3301-0033



육도는 풍도에서 뱃길로 20분 거리에 끝눅섬·가운데눅섬·육도·질마섬·정초리섬·물우녀 여섯 개의 섬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올망졸망한 여섯 개의 섬들이 고개를 여미듯 마주보고 있으며 섬 중에 유일한 유인도는 가장 큰 섬인 가운데의 육도뿐이고 다른 섬들은 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그 중 물우녀 섬은 바위 두 개가 서 있는 모습으로 썰물 때는 나타나고 밀물 때는 잠기며 도깨비 같은 신비함을 주기도 한다.

육도에는 17가구, 30여명 정도 살고 있으며 섬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데 굴, 바지락, 개조개, 낙지, 주꾸미, 꽃게, 새우 등이 많이 잡힌다. 풍도와 육도 바닷가 바위에서 나는 해초, 봄에 맛볼 수 있는 '세모'는 굴과 함께 굴국도 끓이고 볶음, 샐러드 요리로도 맛이 일품인 특별한 제철 음식재료이다.

육도는 민박 펜션은 있지만 슈퍼나 식당은 없어 여행객이 준비해온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숙박할 곳에 미리 예약을 하면 제철에 나는 해산물과 나물을 먹을 수 있다. 서쪽 바닷가 부근에서는 직접 낚시를 할 수 있고 배를 빌려 바다낚시도 즐길 수도 있다.

광자원을 무기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주염전 ▲안산갈대습지공원 ▲다문화거리 ▲노적봉공원 등 '안산9경(景)'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안산시 관광자원 가운데

에는 특히 1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동춘서커스도 여전히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도, 그리고 동춘서커스를 소개한다.



스릴과 감동을 전하는 동춘서커스

대부도에 가면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전국 유일 95년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동춘서커스가 있다.

안산시는 전국에 하나 남은 동춘서커스단을 2011년 대부분으로 유치해 2030년까지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한 방송사가 동춘서커스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와 비교 분석하면서 가성비가 최고이며, 원천기술은 비슷하다고 알려지며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동춘서커스는 묘기, 마술, 무용, 음악 등 모든 볼거리를 함께 공연하는 국내 최장 수 공연단이며 서커스단의 장르보존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해 테마가 있는 서커스로 발돋움해 옛 추억과 향수에서 예술적이며 가장 대중적인 서커스로 돌아와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받고 있다.

1회 공연시간 90분 동안 17~18개 종목을 공연하며 1종목 소요시간은 5분 정도다. 매 종목마다 출연자가 바뀌어 주는 감동이 다르다. 관람하는 관객은 폭소했다가도 어느 순간 감동에 빠지고, 다시 스릴을 느끼며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장에는 아늑하고 편하게 관람 할 수 있게 극장식 좌석이 마련돼 있고,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함께 관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돼 색다른 감

동을 느낄 수 있다.

출장 공연과 단체공연은 협의 가능하며, '안산시청'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을 친구추가하면 올해 말까지 대인 2만5천원에서 9천원, 소인 1만6천원에서 7천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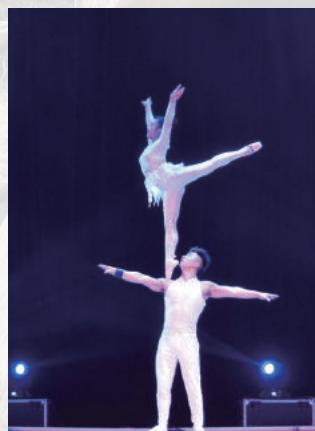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9-31

◇ 공연시간 : 평일 - 오후 2시(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 공휴일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 무료주차 : 공연장 옆 대형공영주차장

◇ 문 의 : 010-5442-2315



섬을 한 바퀴 돌다보면 다섯 개의 작고 아름다운 섬을 감상할 수 있고 태양광발 전소와 작은 교회 등대도 보인다. 자갈 해변을 따라 잔잔한 파도소리 들으며 동해 안처럼 새파란 색을 띠는 바다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해변을 산책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를 더해 준다. 섬 전체가 아주 조용하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가진 육도는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휴양지이다. 겨울에 움츠렸던 마음을 벗어던지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며 소중한 사람과,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마음을 충전 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배 편 : 대부해운(032-886-7813~4)

◇ 짹수일 : 대부도방아머리항 오전10시30분 출발(2시간 소요-풍도 경유)

◇ 홀수일 : 대부도방아머리항 오전10시30분 출발(1시간 반 소요)

◇ 숙 박 : 작은섬민박(010-4070-6737), 쉼터펜션(032-833- 5461)



“이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준비가 됐거든요”

초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현직교사의 ‘꿀팁’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초보 학부모들은 특히 긴장될 것이다. 어엿한 ‘학생’이 되는 아이가 대견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요령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 등을 경기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허정민 씨의 조언을 얻어 정리했다.

입학 전에 건강검진을!

입학을 앞두고 가장 먼저 청겨야 할 것은 아이의 건강검진이다. 소아청소년과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한 뒤, 예방접종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적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 특히 시력, 청력이 좋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대처하자.

꼭 청겨야 할 기본 준비물은?

초등학교 저학년 필요 준비물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천 필통, B나 2B 연필 두세 자루 정도, 풀, 안전가위, 색연필, 사인펜 등 기본 학습도구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들이 물건을 잘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소지품에 이름을 잘 써야 한다. 따라서 스티커형 이름표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유급식 및 체험학습비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학생상담 기초자료, 건강기초조사서, 체험학습 안내 등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많다. 비닐파일을 준비해주고 가정통신문을 꼭 넣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을 수시로 확인해서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입학 설명회에 꼭 참석하자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입학 전이나 입학 당일에 설명회를 진행해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한다. 각 반 담임교사 소개, 1학년에 편성된 교육과정 및 과목 등과 앞으로의 체험학습계획 등을 안내하므로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설명회가 끝나면 각 반 담임교사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안을 돌아다니면서 각 반 교실, 방과 후 교실, 특별실, 도서관, 보건실, 급식실, 놀이터, 운동장 등 아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의 위치를 알려준다. 학부모가 위치를 알아야 아이에게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일로 지급 될 설명회 자료에 학교배치도 및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가 수록돼 있으므로 꼭 받아서 잘 숙지하도록 한다. 만약 설명회가 취소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자. 요즘은 스마트폰용 학교알림앱이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위생에 신경 쓰도록 지도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바뀌는 데에 따라 갑작스러운 배변활동을 하거나 토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입학 전에 미리 학교에 가서 화장실 위치 등을 알려주고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여분의 속옷과 바지 및 물티슈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빨리 놀려고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충치를 유발하므로 급식 후 양치를 잘하도록 지도한다. 아이들이 위생에 소홀하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모둠활동을 할 때 소외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 교육은 필수다.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기침할 때 소매로 가리고 하기 등을 교육해야 한다. 등교 직후, 우유급식 전후 최소 3차례 이상 손 씻기를 정확한 방법으로 하도록 알려준다. 학교에서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겠지만 만약을 위해 각자 갖고 다니면 편리할 것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전 교육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올바른 한글 쓰기와 색칠 연습은 손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국어 교육의 기본이다. 수개념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수모형 등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기본적인 계산 연습을 하면 좋다.

특히 바르게 앓기를 꾸준히 연습시켜야 한다. 급식은 골고루 먹게 하고 뒷정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히 걷기,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수업 중 돌아다니지 않기, 실내화를 잘 갖고 다니기,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기 등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필수

아이가 학교에 가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같이 등교하면서 길을 충분히 알게 한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초록 신호에만 건너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교통안전과 기타 안전사항에 대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의 지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비가 올 때는 아이에게 밝은 색상의 옷을 입히고, 우산을 준비하도록 해 운전자가 빨리 알아차리게 해야 한다.

교사, 아이,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 필요

3월 중 아이에 대한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초조사서에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 아이의 특성, 불편한 점 등을 상세히 적으면 담임교사가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때 담임교사의 연락처도 알려주므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교사에게 문의하되, 먼저 자신이 누구의 부모인지 밝혀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수업 시간 이후의 근무 시간 내에 연락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아이와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아이에게 필요한 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아이 말이 심각해보이면 무작정 아이 말만 믿기보다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담임교사를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요양보호사, 사회적 효를 행하는 사람들

치매·중풍·고령 어르신들 일상생활 돋는다

5년 차 요양보호사 김정애(63·성포동·효경노인재가복지센터) 씨는 팔순 치매 어르신 세 분을 모시는 자신의 일에 무척 보람을 갖고 있다. 그는 요양보호사 일이 “봉사활동도 하고 사는데 주부로서 좋은 일을 하면서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이라며 “5060 신중년 세대에 어울리는 일자리”라고 했다. 그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보람을 들어보자.

Q. 요양보호사 일을 어떻게 알게 됐나?

7년 전 지인으로부터다. 지인은 가끔씩 만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며 내게도 기회가 되면 해보라고 권했다. 부모님 찾아뵙듯 어르신을 방문해 도와드리는 일이고 하루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가정 일을 등한시 할 염려도 없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하는 자영업을 돋고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아는 정도였고, 2년 후 남편이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게 됐다.

Q.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처음 탄생한 국가자격제도다. 자격취득은 어떻게 했나?

집 가까이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어서 한 달 간 교육을 받았다. 교육 이수는 필수다. 이론·실기·실습 교육 80시간 씩 240시간 이수해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나온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에서 요양보호론·요양보호에 관한 것 5지선다형 총 80 문항 중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현장실습은 교육원에서 추천한 복지센터

에서 했다.

Q.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독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돋는다. 어르신들은 노인요양 시설이나 댁(재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식사·약 챙겨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몸단장 같은 개인위생활동도 도와드린다. 병원이나 치료센터에도 모시고 가고, 말벗도 돼드린다.



요양보호사 김정애 씨

Q. 근무시간은 선택가능한가?

가능하다. 내 경우엔 80세 넘으신 어르신 세 분을 모시는데 두 분은 부부라 오전 8시에 그 댁에 도착해 3시간 씩 6시간 근무하고 또 다른 어르신 댁에 가서 3시간 근무 후 5시에 마친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Q. 일에서 얻는 보람과 어려움은?

이분들에게서 우리 부모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께 하듯이 한다. 어르신들은 나의 방문을 기다리고 의지하신다. 그 때 느끼는 보람이 크다. 어려운 점은 내 몸이 아파도 빠질 수가 없다. 그게 어렵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Station-G를
가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 부지에 전국 최초로 창업 공간 Station-G를 조성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 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입주한 기업 중 한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 (주)한복문화연구소 한땀의 김경미 대표를 만났다.

가변성 있는 한복 개발, (주)한복문화연구소 ‘한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복문화 제고를 통해 미래 문화가치 창출을 고민하는 (주)한복문화연구소 한땀 대표 김경미입니다. 전통누비명인이신 친정어머니 대를 이어 한복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만큼 한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답니다.

Q. 김경미 한복에서 상호를 한복문화연구소 한땀으로 변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 제 이름을 건 매장이 김경미한복입니다. 한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이 재미있었고, 전시회, 패션쇼, 학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행복한 한복쟁이로 살았습니다. 이제 한복은 예복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산업은 침체되고 한복문화교육은 공교육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복전문가로서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고민했고, 그에 대한 해답은 한복문화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한복문화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합한 제도라 판단됐고, 이를 위해 (주)한복문화연구소 한땀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신력을 갖추고 보다 전문적으로 한복문화 사업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김경미한복을 운영하며 한복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적 소득보다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그저 한복이 좋았습니다.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진 듯합니다. 한복은 사업보다 교육과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Station-G’에 입주하면서 가

장 큰 사업의 변화는 다른 분야 대표님들과의 소통에서 한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Station-G는 사업공간제공, 다양한 창업교육제공 등 사업 전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복문화교육, 한복사업, 문화상품개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복문화교육 관련 현재 공교육에서 사라진 한복문화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문체부 산하 한복진흥센터의 ‘2019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수행팀으로 선정돼 서울·경기지역 27개 학교에 한복문화교육을 실시했고, 성년식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규방공예지도사 자격증반은 개설 심사 중에 있으며, 교육진행은 동영상강의로 진행하는 온라인교육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외 김홍도 풍속화 속의 한복에 대한 연구나 세시풍습에 나타난 한복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복사업의 경우 전통한복과 더불어 쉽게 즐길 수 있는 신한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신한복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상품은 한복문화와 관련된 상품으로 한국적 색채의 상품으로 색동모던가방, 장식소품 등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는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시대변화에 따른 공감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아이템이라 해도 시대변화에 역행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이 사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불어 내 사업 분야가 아닌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권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사업의 확장성을 도모하여 같은 분야 분들이 갖지 못하는 창의적 생각이 융합되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의 : (주)한복문화연구소 한땀 김경미 대표(010-7310-7965)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어요.”



안산 소방관, 화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소중한 인명 지켜



박동훈 소방관

화재가 발생하면 화마로부터 얼른 피해야 하지만 거꾸로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방관들은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화재 현장에 무거운 장비를 메고 들어간다. 매년 화기를 가까이 하는 겨울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특별 경계 기간으로 매 순간 대기상태다. 화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산소방서 고잔센터 박동훈 소방관을 만나보았다.

Q. 자기소개를 한다면.

2006년 1월 임관해 15년 차 된 소방관이다. 현재 직급은 소방장으로 안산소방서 고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잔센터 동료 소방관 26명과 함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대로 나뉘어 1주일 단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3교대 근무한다.

Q. 화재진압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내가 속한 팀이 5회 정도다. 고잔센터 전체 3개 팀의 출동횟수를 합하면 월평균 10회가 넘는다.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진압용 펌프차와 지휘차, 물탱크차는 기본이다. 이외 조명·배연·사다리차가 상황에 따라 추가된다.

Q. 동료 소방관은 총 몇 분인가?

안산시 전체에는 350명(남85%·여15%)의 소방관이 10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안전센터에서 3교대로 하루 24시간 지키는 소방관들이 출동한다.

Q. 고위험 직종이다. 화재진압 할 때마다 정신적·신체적 영향이 클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깜짝 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다. 앞이 안 보이는 화재현장 2층에서 아래로 떨어질 뻔 한 일, 건물 붕괴 직전이라고 빨리 나오라는 무전 받고 나오자마자 건물이 무너졌던 아찔한 경험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다.

Q. 소방직이 오는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뀐다. 좋은 점은?

장비나 인력충원을 할 수 있으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처우개선도 기대가 된다.

Q. 안산시민에게 화재예방 팁을 준다면?

소화기와 단독화재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권하고 싶다. 주택 소화기 비치는 관련 법 제정으로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경보형 감지기는 불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경보가 울려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해준다. 1인 가구에 특히 필요할 것 같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몸에 기운을 불어 넣는 푸릇푸릇한 봄나물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양지바른 곳에 햇살의 기운을 받은 새싹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다. 연초록의 잎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고 식탁에도 푸릇푸릇한 변화를 준다. 본격적인 봄맞이를 앞두고 향긋한 봄나물을 만나기 위해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봄이 되면 신체의 활동량은 겨울에 비해 늘어나게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 몸은 에너지대사를 높이는데 필요한 비타민을 겨울보다 3~10배 더 찾게 된다. 봄나물에는 비타민, 무기질 등 신진대사를 높이는데 필요한 영양소

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봄철 활기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봄나물로 해풍 맞은 섬초, 싱그런 햇살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봄동, 냉이, 쑥, 달래, 미나리, 방풍나물, 두릅, 취나물 등이 있다. 봄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봄나물은 각각의 특유의 향과 맛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꾸준히 섭취하면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을 이기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움츠렸던 몸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건강을 지켜준다. 봄철 식탁 위에서 입맛을 돋워주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는 봄나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봄동

봄동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 중 하나로 아삭한 식감으로 걸절이와 나물 무침에 안성맞춤이며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걸절이, 된장국, 무침, 전, 나물 등으로 요리해서 먹으면 맛이 제격이다.

냉이

밭이나 공터의 양지바른 곳에 흔히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냉이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기운을 나게 한다. 위를 튼튼하게 해 소화도 돋고, 출혈을 멎게 하는 데 매우 좋은 효력을 지닌 약초다. 이른 봄철 몸이 나른하고 밥맛이 없을 때 냉이를 잘게 썰어서 죽에 넣어 끓여 먹으면 곧 밥맛이 좋아지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다.

달래

특유의 알싸한 맛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데 좋은 봄나물이다. 비타민A나 B1, C 등이 골고루 들어있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달래의 칼륨성분은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좋다. 무침, 된장찌개, 비빔밥, 생채, 수제비, 등의 요리를 해서 먹으면 좋다.

두릅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으로, 독특한 향이 나는 산나물이다. 다른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다가 아미노산 조성이 뛰어나 영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두릅에는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칼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 먹으면 맛이 좋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얼리기도 한다.

쑥

쑥에는 칼슘이나 인,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이 봄나물 중 최고로 많이 들어 있어 쑥 한 접시면 비타민A 하루 필요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 비타민C도 많아 봄철 감기예방 및 면역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쑥은 이른 봄에 연한 것을 살짝 데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된장국이나 찌개로 끓여먹어도 좋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새마을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나눔

수년 동안 훌몸어르신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안산시새마을회에서는 이번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질병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훌몸어르신들에게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매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한몫 했다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서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숙희 생생마을기자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 선생의 발자취 성호박물관

오늘날 실학의 대종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호 이익(1681~1763)은 안산이 낳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입니다. 이익 선생이 생전에 남긴 친필과 저서 등 성호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유물을 전시한 성호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박물관은 상설전시관, 기획 전시관, 선생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구성해 상영하는 영상관 및 실학과 관련된 실학 정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의 지식 보물창고! 성호박물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 이금순 SNS시민기자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각' 경보 해제 시까지 임시휴관



행복지수 UP!! 일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2019년 10월 개소한 일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의 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무인 택배보관, 공구대여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0명의 행복마을관리소지킴이 분들이 공원이나 놀이터를 순찰하며 위험하거나 고장난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후미진 골목의 안전문제까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등 공간을 관리하는데요. 주민들이 소소한 욕구의 총족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킴이 분들 또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 권성혜 생생마을기자



지역경제도 살리는 안산화폐 다온(多溫)

'다온'은 안산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다온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매자는 평상시 6%, 특별혜택기간에는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단 QR 코드를 스캔하면 다온 카드식, 지류식 발급방법과 사용가능 점포, 사용 시 유의사항 등 평소 다온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점을 알려드립니다.

• 나누리 학생기자



안산 가볼 만한 곳 봄 향기 가득한 안산식물원

사계절 언제 가도 열대식물은 물론 꽃을 볼 수 있는 안산식물원은 상록구 이동 성호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매화꽃이 피었겠지 하며 살포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안산식물원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에서 쉽게 자연 생태계를 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어린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열대 전시관, 중부 전시관, 남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사한 봄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안산식물원으로 놀러오세요.

• 이금순 SNS시민기자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각' 경보 해제 시까지 임시휴관



고잔역 철길 따라 산책해봐요!

"이번에 내리실 역은 고잔역, 고잔역입니다" 제가 산책하러 온 곳은 고잔역입니다!

'고잔역 근처로 산책을?'이라는 의문점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고잔역 근처에는 산책환경이 아주 잘 조성돼있어요. 고잔역 근처의 문화소통공간 'Station-A에는 카페와 커피공방, 예술공방도 자리 잡고 있답니다. 아쉽게도 카페와 공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휴업중이고 상황이 안정되면 열 예정입니다.

• 조현진 학생기자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동

안산대학교 부설 석학어린이집, 후원금 기부

일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13일 안산대학교 부설 석학어린이집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원아들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모아진 후원금을 매년 전달하고 있는 안산대학교 부설 석학어린이집은 후원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유경미 석학어린이집 원장은 "따뜻한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박종홍 일동장은 "아이들의 순수한 이웃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후원금이라 생각되며, 이 후원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일동행정복지센터(031-481-5724)



사이동

상록축구회, 사이동 저소득 불우이웃 후원

상록축구회는 지난 2월16일 관내 저소득가정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상록축구회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해 이웃사랑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록축구회 시무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이동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현금을 기탁했다. 염석규 상록축구회 회장은 "정기적인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며, 이번 기탁을 통해 저소

득 가정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현 사이동장은 "해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내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사이동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 사이동행정복지센터(031-481-5748)



해양동

그랑시티자이1차 아파트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해양동행정복지센터는 2월부터 입주하는 그랑시티자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현장민원실은 그랑시티자이 109동 2층에 설치돼 2월 21일부터 3월31일까지 운영되며, 직원 2명이 전담 배치돼 입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모두 3천728가구의 규모로 조성된 그랑시티자이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장민원실을 마련했다.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입주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현선 해양동장은 "그랑시티자이의 대규모 입주 시기에 따라 탄력적인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입주민들이 민원업무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동행정복지센터(031-481-5464)



본오3동

세화병원장례식장과 '장례서비스 지원' 협약 체결

본오3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세화병원장례식장이 지역 복지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13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정규상 본오3동장, 위성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명근 세화병원장례식장 대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세화병원장례식장은 본오3동에 거주하는 주민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망 시 ▲화장용 수의, 오동관 무료 제공 ▲관내 운구비 무료(검안시 제외) ▲분향실 임대료 10%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일

무료제공) ▲장의용품 10% 할인(기초생활수급자 50%, 차상위계층 30% 할인) 등 원활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명근 세화병원장례식장 대표는 "본오3동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필요한 장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상 본오3동장은 "세화병원장례식장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본오3동행정복지센터(031-481-5706)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중앙동

중앙동에 맞춤형 쓰레기통 설치 효과 분석해 확대 설치 검토

안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중앙동 일대 쓰레기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맞춤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365일 상시 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동 로데오거리는 많은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즐겨 찾으면서 야간시간에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와 홍보전단 살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잇따르던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음식물종량제봉투 전용 배출함 설치로 음식물 침출수를 예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확대로 쓰레기 적치를 최소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결 관리에 힘써 왔으나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야간시간의 청결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들도 시는 담배꽁초와 소량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 시민과 상가의 청결문화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 등 상시 청소체계를 운영하면서 로데오거리의 청결 관리에 나섰고, 눈에 띠는 개선효과를 이뤄냈다.

중앙동에 설치한 쓰레기통은 모두 4개로 대형주차장 양편에 있는 로데오상가에 각 2개씩이다. 쓰레기통은 일반, 재활용, 담배꽁초 분리수거용 휴지통으로 3개의 분리 수거함이 하나로 이뤄져 있다.

중앙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 A씨는 “저녁에 중앙동을 찾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각종 쓰레기들이 로데오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휴지통이 등장해 거리가 깨끗해졌다”면서 “4개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통 주변도 수시로 청소해 주변이 항상 깨끗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와 설치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경 명예기자(poet-hk@hanmail.net)

초지동 · 신길동

코로나19 대비 긴급방역 실시



초지동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방재단, 유관단체와 함께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곳곳을 돌며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2월13일 방역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일평균 400여 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초지동행정복지센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극동스포랜드, 별빛시립어린이집 등 곳곳을 누비며 방역활동을 실시해 주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

았다. 초지동은 청사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에 이어 이번 안산시자율방재단의 추가 방역을 통해 관내 주민들이 안심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유영서 자율방재단장은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꾸준히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재문 초지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길동행정복지센터도 2월10일과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민원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들이 방문하는 주요 공간에 대한 방역을 꼼꼼하게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출입구와 민원대에 손 소독제를 비치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상열 신길동장은 “동 차원에서 방역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초지동행정복지센터(031-481-6737)
신길동행정복지센터(031-481-6643)

선부1동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솔루션 회의’ 개최

선부1동행정복지센터는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월19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선부1동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솔루션회의는 김춘임 선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김한욱 신안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광심 선부어울 지역아동센터장 등 평소 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전문가와 주민 15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정서·심리적 지원 등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

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아동의 사회화를 지지하는 인적·물적 체계망도 구축했다.

슈퍼바이저로 참석한 신안산대 사회복지학과 김한욱 교수는 “긴급한 지원이 절실했던 위기가구를 위해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참석자들의 협력과 열의를 보니 지역사회 복지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에도 복지대상자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선부1동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동이 무탈하게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공적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선부1동행정복지센터(031-481-6847)

2020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 기반 신진예술가 육성 아트마켓 통해 세계시장 진출 기대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0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안산 거점 신진예술가들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거리극학교’를 시행한다.

거리극학교는 거리예술의 제작을 안정화함으로써 거리극축제를 위한 우수 콘텐츠를 유치하고, 안산만의 특색있는 거리예술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시도다.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리예술단체의 콘텐츠 발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안산에서 시작된 작품을 국내외 거리예술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거리극학교를 통해 발굴된 작품은 2020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아트마켓에 등록되어 보다 넓은 시장을 경험하게 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인큐베이팅 기반 거리극학교와 자체 제작 기반 거리극학교로 나뉜다. 인큐베이팅 기반의 경우 신진거리예술단체의 작품을 재창작 및 발전시키는 형식으로, 국내 거리예술 전문가를 자문 연출로 선정 후 단체와 1:1 매칭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국내 연출 및 자문진으로는 극단 ‘서울괴담’의 유영봉 연출가와 ‘공작소 365’의 도재형 연출가가 선정됐다.

자체제작 기반의 거리극학교는 선발된 안산의 청년예술가가 해외 연출가의 신작에 출연함으로써 해외 공연단체와의 협력 및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연출로는 말레이시아의 안무가 아이다 레자(Aida Redza)가 지휘봉을 잡는다. 아이다는 공연예술단체 ‘원드 리버 프로덕션’의 안무가로,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식참가작 ‘쌀의 여정’으로 소개된 바 있다.

거리극학교는 단순한 거리예술 작품 소개를 넘어 제작의 메카로서 축제의 새로운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시 일대에서 열린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41)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관람료 지원사업 ‘키움티켓’

안산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착한티켓



안산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6년째 청소년 예술지원사업인 ‘키움티켓’을 운영하고 있다. ‘키움티켓’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공연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더욱 많은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예술지원 사업이다.

‘키움티켓’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이 선뜻 예매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대의 뮤지컬이나 콘서트, 연극 등의 공연을 최대 1만5천원까지 지원받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공연예술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조금이나마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 10인 이상의 단체 예매 시에 신청이 가능하여 학교, 동아리,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매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누적된 지원 청소년은 총 2만3천여 명에 달하며 2020년에도 안산시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키움티켓’ 선정 작품이 준비돼있다. 8월에는 국립오페라단의 콘서트 오페라인 ‘마술피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

명훈과 KBS교향악단의 클래식 연주회가 무대에 오른다. 10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연극 축제인 ‘B성년 페스티벌’, 단원 김홍도를 주제로 한 안산문화재단 창작 뮤지컬도 이어진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뮤지컬 ‘코스프레 파파’도 2018년에 이어 올해 12월,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김홍도의 그림을 소재로 한 무용 ‘댄싱키즈’, 2019년 ASAC창작희곡 선정작 연극 ‘어느 아파트’ 등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관람 이외에도 신청 단체의 특성에 맞게 공연 전 ‘백스테이지 투어(무대 뒤에서 준비되는 과정과 세트를 살펴보는 체험)’,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공연 당 ‘키움티켓’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객석이 한정적이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공연내용과 신청, 접수는 키움티켓 홈페이지(www.kiwoom.anسان문화재단.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움티켓이란?

안산시 청소년에게 공연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정가의 70%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안산시에 거주하는 8세 이상~19세 이하 (10인 이상)

지원내용 : 공연 관람료 가격 약 5천원~1만5천원 할인

문 의 : 안산문화재단(031-481-4023)



안산시의회, ‘시화호 유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올해 12월까지 시화호 유역 지속가능발전 이용 계획 수립 추진



안산시의회가 지역의 대표적 환경 자산으로 꼽히는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5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가결한 데 이어 곧바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마쳤다.

의회는 앞서 지난 1월3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 위원장은 박태순 의원이, 간사는 윤석진 의원이 맡았으며, 주미희 한명훈 유재수 추연호 김진숙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활동 기간은 올해 12 월 말까지로 11개월간이다.

특위가 앞으로 활동을 벌일 시화호는 지난 1994년 12.7km의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로, 2000년 시화호 담수화 최종 포기와 2011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준공 등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류지로부터의 유입량 부족으로 인해 안산갈대습지를 포함한 시화호의 수질 악화와 시화호

를 가로질러 서 있는 송전 철탑의 자연 경관훼손 문제가 대두되는가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별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난개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56 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화호 유역에 대한 특성 연구를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으로서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화호 유역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적 특성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면서 “시화호 유역은 미래세대도 함께 향유하는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남아야 하는 만큼 특위 위원들과 협력해 이 일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올해 첫 간담회 개최

장애인복지 전문가 초청 정책 강의…관련 이해 높이며 연구단체 활동 계획도 논의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행동지원 방안을 연구 과제로 삼은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가 올해 첫 활동으로 장애인복지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 소속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이진분 의원은 2월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성인자립지원팀 윤란 팀장으로부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별 국가종합대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강사로 나선 윤란 팀장은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풀어냈다. 그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애환이 담긴 메모와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소개

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기진단·조기개입으로 발달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부모들의 소득 보장과 사후 신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의원들은 강의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돌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들도 그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면 지역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면서 내실 있는 연구 활동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첫 일정을 소화한 ‘우리는 모두 꽃이다’ 팀은



내달 중순 이후에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현황 자료 공유를 위한 회의를 한차례 더 가질 예정이며, 오는 4월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

혁신교육정책연구회·市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지역 혁신교육 개선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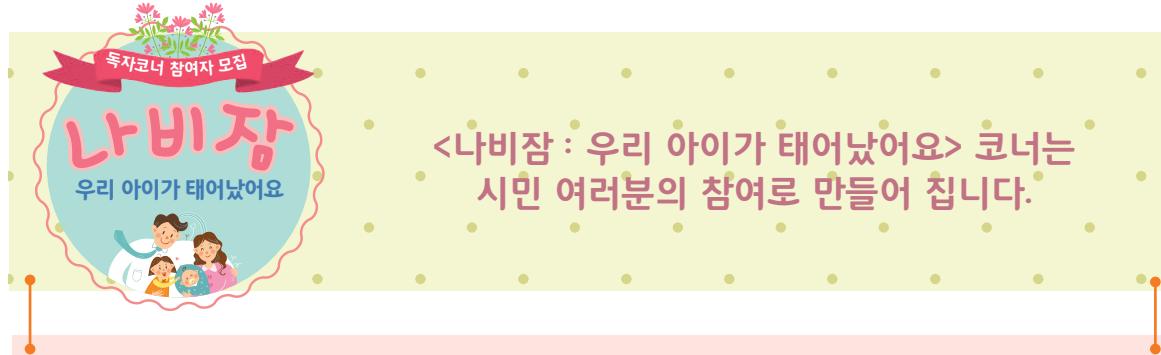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이 2월19일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나정숙, 이기환, 김동수, 김태희, 이경애 의

원과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및 ‘혁신교육정책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혁신교육정책연구회’는 지역 혁신 교육 발전을 위해 교사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로, 이날 회의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사업의 발전적 연계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자 참여했다. 회의에 따르면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2월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한 이래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 2를 수행 중이다. 올해도 6개 사업 부문에 총 55억5천200여만원을 투입,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참석한 혁신교육정책연구회 회원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 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가 확대·개편되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시민 홍보와 더불어 시·교육청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 아이가 세·젤·예(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

아이이름: 이세인(남) 출생년월: 2019년 11월 태명: 깬님이

복부인들과 함께 드넓은 깻잎 밭에서 더 없이 많 은 깻잎을 따는 꿈. 그게 바로 우리 아가의 태몽이 었습니다. 그 태몽으로 “깻잎아 깻잎아~” 부르던 게 ‘깬님이’라는 태명이 됐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깻 잎 태몽은 여야라고 하던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 남 아였어요. 주변에선 우스갯소리로 깻잎이 아니라 고춧잎이라고 놀리곤 하세요.^-^;;

사실 전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예전엔 나름 독신주의자였기도 했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엔 주변에서 아기들 사진 보여주면 “와~ 너무 이뻐요!”라고 영혼없이 대답해주곤 했죠. 그렇 게 몇 번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왜 자꾸 보여주는 거 야?’라고 속으로 짜증을 좀 내기도 했고요. 그러던 제가 연애의 달콤함에 빠져 결혼을 하고 이젠 한 아 이에 엄마가 됐습니다. 이젠 제가 여기저기 아기 사진을 자랑합니다. 아기가 어리고 나쁜 코로나 때문에 데리고 다니며 자랑은 못하지만 여기저기 아기 사진을 뿌리며 자랑합니다. 어쩌면 받는 사람들은 스팸메일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ㅎㅎ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아이는 예쁘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요. 다들 마

찬가지겠지만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 애요♥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 출산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낳아보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행복 해요~ 더구나 안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잖아요. 요즘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예전보다 더 키우기 좋아진 것 같아요. 안산에 거주하시는 모든 엄마아빠! 우리 모두 힘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더욱 예쁘게 키워봐요. 모두들 힘내세요!

· 이현미(상록구 성포동)



시화호 바다학교

우리 고장 시화호
오늘도 시화호
조력 발전소로 등교한다.

시화호 선생님
물고기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전기를 만들고

물고기는 발전기 사이로 빠져나가기 놀이
시화호로
바다로
신나게 헤엄친다.

하늘엔 갈매기 위로 아래로
우리는 인공 섬에서
연 날리기 소리치기
체육시간만 있는 신나는 학교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
하나로 어울리는 다문화 세상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바다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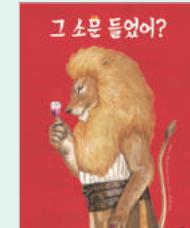
우린 오늘도
주황빛 노을과 함께 하교한다.

· 손기령(중앙초 6)

책 읽는 안산 / 3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FAKE 아닌 FACT』

아동



그 소문 들었어?

저자 하야시 기린 / 출판사 천개의바람

과연 우리는 망해버린 나라를 보며 누구의 탓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거짓된 이야기를 꾸민 것은 금색 사자이지만, 거짓 이야기가 소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동물들의 입방아가 필요했다. 이러한 동물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커다란 소문이 되는 과정이, 소문은 어느 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



뉴스, 믿어도 될까?

저자 구본권 / 출판사 풀빛

이 책은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미디어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뉴스와 언론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를 현명하게 읽어 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에 꼭 알맞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성인



뉴스와 거짓말

저자 정철운 /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우리는 오보라는 일상 속에 살고 있다. 습관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착각, 권위에 대한 맹신, 귀차니즘이 오보를 만든다. 때론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미필적 고의로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다.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만이 오보는 아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실관계의 나열도 오보의 한 갈래다. 대다수 언론인이 ‘기례기’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보의 역사’다.

전문가
기고

정의로움은 위험하다

한 의뢰인이 있었다. 중년의 남성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었다. 주로 하는 일은 인터넷 게시판(지금처럼 SNS가 일반화되기 전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는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철이 되면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쓰는 시간이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에 이를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사람이며, 그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는 불의한 반대자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로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결국 그 비난과 욕설 때문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정의로, 불의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수사관이나 법관마저도 불의한 자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그 재판결과도 불의한 것이고, 정의로운 자신을 팝박하는 것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인터넷게시판(이후 일반화된 SNS)을 통한 비난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동일 전과는 계속 쌓여갔다.

나는 정의로우므로 불의한 자들을 비판할 수 있고, 단죄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두 가지 큰 함정이 있다. 정의로운 나를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모든 행위는 불의라는 결론이 첫 번째이며, 불의한 자는 타인의 불의를 비판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자신의 정의를 믿는 자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함정에 빠졌을 때의 위험이 커진다. 정의롭다는 것과 비판하거나 비판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의로우므로 누구든 비판할 수 있으나,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독선과 오만은 냉소와 증오만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세상의 누구도, 그가 실제로 가장 정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자라도 함부로 타인을 비판해서는 안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일 때 비로소 정당할 수 있다. 내가 정의롭다는 믿음은 언제나 위험하다. “내가 정의롭다고 믿을수록, 그 믿음에 만족할수록, 나는 덜 정의롭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 김성천 변호사

독자
투고

우리 모두 힘내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요!



중국 우한으로부터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잠시 해졌나 하고 백화점도 다니고 아이를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도 가고 외식도 했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아이들의 개학도 늦춰지고 종교시설의 모임들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설날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도시인 안산의 지역적 특성상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 서울 대림동 다음에 안산을 위험지역으로 꼽았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안산에 사는 나를 걱정하기도 하고, 아이 유치원 친구들이 등원을 안하기도 하고,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들만 커져갔다. 이 두려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산에 확진자가 있나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

2월24일 현재, 다행히 안산시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 때 중국인 기피 논란으로 방문금지 순위로 꼽혔지만 안산시는 감사하게도 확진자가 없다.

오히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산에 사는 중국분들이나 조선족분들이 더 조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원곡동에 있는 도서관들도 예방차원으로 휴관을 하고, 또 시차원에서 안산역 근처나 다문화거리, 대중교통시설, 관공서 등에도 주기적으로 방역활동 등을 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우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예방수칙을 잘 따르며, 서로 걱정해 주며 위로해 주면서 빨리 이 사태가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쉬는 날도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힘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본인들도 감염될까 두려울텐데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시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 매일 감염여부 모니터링으로 안산시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시고, 방역활동에 고생하시는 시청 구청,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가까운 지인도 코로나로 인해 키즈카페를 2주 이상 문 닫고 다시 오픈을 했는데, 다시 더 상황이 악화돼서 힘내시라고 전하고 싶다.

일하는 엄마를 둔 우리 아이, 그리고 수많은 워킹맘들의 아이들… 이 시국에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음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많이 신경써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유치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듯 보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방 수칙을 잘 따르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상황도 잘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 한미나(단원구 고잔동)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생생도시 안산
방송탔다!**

PLAY

OBS 경인TV(2월1일)
안산시 다문화 특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홍보

OBS 경인TV (2월5일)
안산시-한양대,
종합병원 건립 MOU 체결

MBN(2월18일)
안산시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점용료 받는다

Yonhap News TV
21:37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내야"...안산시 승소
안산시 승소

경기도·안산시 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단기 훈련생 모집공고

- ◇ 모집기간 : 각 훈련별 모집기간까지
- ◇ 모집대상 : 경기도 거주 만 40세~65세 구직자
- ◇ 훈련과정(수료 후 취업알선 진행 예정)
 - 대체급식조리사 양성교육,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 통계·설문조사원 양성교육,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교육
- ◇ 문 의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070-4924-9009)

안산시 자전거보험 혜택 제공 안내

- ◇ 지원대상 : 안산시민, 안산시 거주 외국인 중 개인 자전거, 공공자전거 이용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자
-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이 안산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 ◇ 지원기간 : 2020. 3. 1. ~ 2021. 2. 28
- ◇ 보장내용 : 사망·후유장애·진단위로금, 변호사비용 등
- ◇ 신청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

어린이날 기념행사 프로그램 및 공연팀 공모

- ◇ 접수기간 : 2020. 2. 17. ~ 3. 23.
- ◇ 공모대상 : 초·중·고·대학생,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또는 팀
- ◇ 지원금 : 최대 50만원(프로그램), 30만원(공연)
- ◇ 공모내용 : (1) 어린이를 위한 놀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2)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
- ◇ 문 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08)

어린이날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2020. 5. 5.(화)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야외무대)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안산화폐 '다온'



**10% 혜택!
3월까지 연장!**



무료 국가암검진 안내

- ◇ 기간 : 연중 ◇ 장소 : 전국 검진기관
- ◇ 대상 : 짹수년도 출생자 중 무료검진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 의료급여수급권자
- ◇ 검진항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 문의 : 상록수보건소(481-5928, 5953)
단원보건소(031-481-6622)

**융자규모
500억!**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2020. 3. 2. ~ 3. 11.

지원방법 업체당 5억 원 이내, 이자차액(1.5~1.8%) 보전

신청대상 관내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기업 우선선정)

-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 공고문 참조

협약은행 중소기업, 농협, 씨티,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산업, 국민, KEB하나, 신한은행

문의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841)

Ch 안산시청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플친에게만 드리는 할인혜택!

Ch 안산시청 +

시민의 힘을 모아
오늘도 꿈꿔하게 생기는
안산
안산
친구 30,626명
노령부자보호는 세계적으로 친환경 친연기념물로,
단산의 대부분이 서식합니다.
체험하기 추가관 채널 더 알아보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 →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 ★ 별빛마을 포토랜드 대인 **2천원** 할인
- ★ 좋은아침 베이커리 : **제품** 할인
- ★ 동춘서커스 : 대인 **9천원**, 소인 **7천원** 할인
- ★ 베르아델 승마클럽 : 평일 **10%** 할인
- ★ 세종도예원 : 체험료 **30%** 할인
- ★ 의왕 레일바이크 : 평일 탑승권 **3~4천원** 할인
- ★ 수원 화성행궁 : 오전9시~오후6시 **무료** 입장(주간)
- ★ KTX 호반아트리움 : 관람료 **20%** 할인
- ★ 광명동굴 관람 : 입장료 **20%** 할인

※ 현장에서 할인쿠폰 제시

문의 | 안산시 공보관 031-481-3759